

VI. 가야의 성립

1. 가야의 풍토와 지리
2. 가야의 건국 설화
3. 가야 제국의 성립
4. 가야연맹의 형성

VI. 가야의 성립

1. 가야의 풍토와 지리

가야 계통 소국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지역이 늘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오랫동안 근거지로 삼았던 곳은 낙동강 및 그 지류인 남강유역 일대의 땅이었다. 그 경계는 크게 보아 서쪽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덕유산 등으로 둘러싸이고, 동쪽으로 迦智山·琵琶山 등으로 둘러싸였으며, 남쪽으로는 남해에 면하였다. 외부와의 교통 여건으로 보아 서쪽 및 북쪽으로는 지세가 험하여 거의 막혀있는 형세이며, 동쪽으로는 산세가 있다 해도 드문드문 뚫려 있는 형편이다.

가야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땅이 비옥하여 강변 및 해안을 따라 골고루 평야가 발달하였으나 곳곳에 나지막한 지맥이 뻗어 있어 광활한 평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둘로 나눈다면 낙동강 하류지역을 비롯한 경남 해안지대와 낙동강·남강 상류지역을 비롯한 경상 내륙 산간지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해상교통 및 농업기반의 면에서 서로간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해운 입지조건 면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김해지역이다.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3세기 무렵에 낙랑에서 배가 출발하여 서해·남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데 狗邪韓國에 들렀다가 해협을 건너 倭地로 향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김해지역의 입지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擇里志》에서 동해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험해서 서남해의 선박이 잘 닿지 않는 데 비해, 서남해는 물결이 완만하여 전라·경상으로부터 한양·개성·황해·평안까지 商賈가 이어지며 낙동강 입구에서는 강줄기를 따라 상주·진주까지 배가 미치니, 경상도에서

는 그러한 南北海陸之利를 김해가 모두 관장한다고 말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상황이 고대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 당시에도 김해는 정치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한반도 서북지방과 경상 내륙지방 및 왜지 등을 연결하는 해운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해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부산·양산·밀양도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서쪽의 창원·마산·고성·사천의 경우 내륙 수로는 없어도 서남해의 해상교역에는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함안은 직접 해안에 면해 있지는 않아도 그들 배후의 육상교통 요지에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이후 4세기 무렵까지 김해를 비롯한 경남 해안지대에서의 활발한 교역상은 고고학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물상으로 보아 김해패총에서 출토된 王莽錢, 김해 良洞里 토광묘의 後漢代 尙方鏡, 창원 茶戶里 목관묘에서 나온 前漢代 星雲鏡·五銖錢·琴形帶鉤·小銅鐸, 창원 성산패총에서 나온 五銖錢 등은 낙랑과의 교역을 방증해 주는 것들이다. 또한 김해 池內洞 옹관묘에 부장된 야요이(彌生) 중기의 袋狀口緣土器나 김해 良洞里 목곽묘의 廣形銅矛, 김해 大成洞 목곽묘에서 나온 4세기경의 筒形銅器·巴形銅器·碧玉製紡錘車形石製品 등은 왜와의 교역 또는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이에 비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을 비롯한 가야지역 내륙 산간지방은 해운 입지조건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그와 다른 장점인 농경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고학적으로 이 지역의 농경문화 전통은 유래가 깊어서 기원전 6~5세기 이래 고령 良田洞, 산청 江樓里, 진양 大坪里 등지에서 지석묘·무문토기 단계의 농경 주거 유적이 발견되었다.

원래 한반도 남부지방은 여름철에 고온다우하고 벼의 생육기간이 넉넉하여 水稻作 농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 내륙 산간지방은 전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 그 지역의 농업 입지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이었음은 慶尙右道의 땅에 대한 조선 후기 農書 또는 地志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伽倻川 유역의 성주·고령·함천과 지리산

1) 李重煥, 《擇里志》卜居總論 生利.

동쪽의 진주 등은 가장 비옥한 땅으로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旱災를 겪지 않았으며, 안음·거창·함양·산음 등도 상당히 비옥하였다고 한다.²⁾ 조선 후기의 상황이지만 토지가 비옥하다는 척도로 보아 경상우도 중에서도 내륙 산간지방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장황한 반면에, 그보다는 평야가 넓은 경남 해안지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즉 이 지역에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지 않은 것은 일정한 한계성이라 하겠으나, 별다른 수리기구가 없는 전근대적인 농업기술하에서는 범람이 잦은 큰 강변의 평야는 농경에 불리하고, 오히려 계곡 사이의 물을 쓸 수 있는 산 밑의 좁은 들이 농업 입지조건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였던 것이다.³⁾

한편 가야지역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지역에 鐵産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생활 유적지에서 철기 제작의 부산물인 鐵滓가 나온 곳만 해도 김해 회현동·부원동 패총, 고성 패총 등이 있어서 고대 鐵産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초기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김해 甘勿也村과 창원 夫乙無山の 沙鐵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冶鐵址가 드러난 창원시 성산패총의 경우에 최하층에 무문토기 계통의 유물이 존재하고 그 바로 윗 면이 야철지로 추정되며 그 위의 패각층에서 오수전·김해토기 및 철도자 등의 유물이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철자원 개발 및 철기 제작기술의 보급에 따른 야철 그 자체가 이 지역의 발전 및 그에 따른 패총 문화의 형성에 기본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철산과 해운의 두 가지 이점이 연결되어 당시의 경남 해안지대에서는 《三國志》魏書 韓傳 弁辰條에 보이듯이 鐵鎚을 돈처럼 쓰기도 하고 韓·濊·倭·二郡에 철을 수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의 경상 내륙 산간지방에는 아직 야철지가 발굴된 바 없으나 고령·거창·함양·산청·합천·삼가 등지의 高塚고분에서는 다

2) 李重煥, 《擇里志》卜居總論 生利·山水 및 八道總論 慶尙道.

徐有榘, 《林園經濟志》本利志 권 3, 東國土品 八域可居地.

3) 丁若鏞, 《與猶堂全書》5, 권 22 및 1集.

량의 철제 무기와 갑주 등이 부장품으로서 출토되었다. 이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鐵鑛자원의 존재와 연결시켜 보아야 할 듯하다. 후대의 자료로서 《世宗實錄地理志》에 함천군 冶爐縣 心妙里的 鐵場과 산음현 馬淵洞山, 삼가현 毛台亦里 欖頂山の 철장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철산업 개발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아로현의 철장은 조선 초기 歲貢正鐵 9,500근을 내던 풍부한 것으로서 당시 한반도 3대 철산의 하나였으므로 가야 지역내에서 그 철산지의 중요성은 컸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정리하여 볼 때 가야지역은 질 좋은 철광산이 산재한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하류지역의 김해·부산·양산 일대는 해운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함천·고령·성주 등의 상류지역 일대는 안정적이고 양호한 농업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에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제한적이거나 창원·고성·사천 등의 해안지대는 해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산청·함양·거창 등의 산간지대는 농경조건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가야지역의 지리 및 풍토 여건은 양호하였으나 역사의 전개란 지리적인 요소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金泰植〉

2. 가야의 건국 설화

가야의 건국 설화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는데, 고려 文宗代 후반 金官知州事가 찬술한 《駕洛國記》에 김해 駕洛國 首露王 神話가 전하고, 신라 말기 崔致遠이 찬술한 〈釋利貞傳〉에 고령 大加耶國 伊珍阿跂王 神話가 전하고 있다. 같은 가야국의 시조가 이름이 서로 다른 두 명이고, 그 신화가 두 지역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가야사의 전개과정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시한다.

1) 가락국 수로왕 신화

우선 수로왕 신화는 김해지역에 하나의 통합된 정치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전하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이 기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의 전승이 복합되어 그 성격을 속단할 수는 없으나, 전통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전설의 성격상 개개의 호구수나 편년 기록, 강역 범위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로왕 誕降 전에 九千이 거느리는 아직 이름도 없는 촌락의 전체 호구수가 100호 75,000인이었다고 하였다. 《三國志》魏書 韓傳에 辰弁韓의 大國은 4, 5천 家이고 마한의 대국은 만여 가였다고 하였으니 1호당 구성원수가 5명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1국당 25,000인 또는 50,000인 정도가 될 수 있었다고 볼 때, 가락국의 인구 75,000인이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고 하겠으나 어느 시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1호당 750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나, 「1백 호」는 혹시 「1만 호」의 誤刻이 아닐지 모르겠다.

수로가 後漢 建武 18년(42)에 천강하였다는 것도 그 연대를 신빙할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기원 전후한 시기의 이 지역에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략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연대에 대한 문제는 건국시기와 관련하여 뒤에서 좀더 자세히 논급할 예정이다.

또한 가락국을 포함한 이른바 「6加耶」의 강역을 동쪽은 黃山江, 서남은 滄海, 서북은 地理山, 동북은 伽耶山, 남쪽은 國尾라고 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수로왕은 가락국의 시조가 아니라 3세기 정도에 가야연맹을 결성한 中始祖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¹⁾ 연맹 결성의 시기와 계보관계의 여부를 수로왕 신화의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역시 이는 건국 직후의 강역이 아니라 가야연맹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후대 인식의 한 증거일 뿐이다.

그러나 我刀干·汝刀干 등 9간의 무리가 龜旨峰에 모여 龜旨歌를 부르자

1)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317쪽.

하늘에서 金卵 6개가 내려오고, 이것이 我刀家에서 변화하여 동자로 되자 9간 등의 무리가 이 중 한 사람을 추대하여 수로왕으로 삼았다는 줄거리는 일정한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줄거리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로왕 신화에서는 수로왕보다 「9간」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신화 초두에 먼저 나오는데, 이 점이 고조선 또는 고구려 계통의 天神이 먼저 나오는 정복형 신화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9간은 김해지역에 산재하던 소단위 세력집단들인 9村의 酋長들로서, 그들은 수로 강림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재지세력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일반적인 영웅 신화처럼 수로왕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최고통치권자 또는 귀족계급의 대표자인 「王」의 출현을 알리는 것인데, 9간 등이 불렀다는 「구지가」는 集團降雨呪術 또는 祈雨祭의 변종으로서 원시농경사회에 일반적인 것이므로 구지가는 전체 신화구조 속에서 다른 것보다 오래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신화의 내용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구지가를 부르자 그 힘에 의하여 비 대신에 수로왕이 내려왔다. 그렇다면 봄의 특정한 날에 9간을 비롯한 200~300인이 구지봉에 모여 구지가를 부르며 共同祭儀를 벌이는 협동체제는 하늘에서 들려온 수상한 목소리에 따라 처음으로 연출된 것이라기보다 수로왕의 출현 이전부터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로 수로왕 출현 장면의 묘사에 의거해 볼 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상자가 내려오고 그 안에 금빛 알이 6개 들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깨어 수로왕이 나왔다고 하였으니, 곧 고조선 및 고구려 계통 신화와 같은 天降 및 卵生の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가락국 지배계층의 神聖수식 관념이 한반도 북방 계통의 민족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 천강 난생의 神異性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넷째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수로왕이 9간과 같은 재지세력의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시에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이주민이거나 또는 이주민으로서의 명분을 아직 잃지 않은 사람으로 추정된다. 신화적 요소가 많이 탈색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나오는 가야 개국전설에

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수로라는 사람이 龜峯에 올라 駕洛 9村을 바라보고 그 땅에 가서 개국하여 가야라고 이름하였다”고 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주민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로 천강의 명분을 지니는 수로를 9간들이 합의하여 왕으로 추대하였으므로, 결국 재지세력들의 합의에 의하여 누군가를 선출함으로써 왕권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로왕은 천강한 이후 金卵 상태로 我刀의 집으로 옮겨지고 그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므로 재지세력의 대표격인 아도간과 어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추대를 토대로 수로왕은 가락국을 건국하여 9간이 다스리던 전체지역을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다.

그러므로 수로왕 신화는 김해지방에 이미 소단위 재지 권력집단들의 연맹체인 「9촌연맹」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지배자인 9간이 합의하여 이주민 계통의 수로왕을 추대함으로써 가락국이라는 소국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시조 탄생 및 건국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로 통합된 정치체제를 이룬 후 수로왕이 또다른 이주민 계통의 세력으로 보이는 脫解의 도전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소국 결성의 계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당시의 시대상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6卵 즉 6인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소로서 설화의 원형을 잃은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신화의 전체 구조에서 수로왕 탄강의 요소에 비하여 나머지 5卵은 내용상으로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이 부가되어 있을 뿐이며, 논리적으로 볼 때 김해에서 천강의 명분을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치 명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초기의 《高麗史》地理志 및 《世宗實錄地理志》金海條에 기록된 수로왕 신화에는 금란이 1개로 되어 있어 「6가야」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신화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6난의 요소는 후대의 조작이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엔가 가락국이 주도하여 이른바 「6가야연맹」을 형성하였던 후대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가야연맹설의 문제점은 앞에서 상술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또한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는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가락국 건국 이

후에 阿踰陀國 공주 許黃玉과의 신이한 결혼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आयुता국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이 분분한 상태이다. आयुता국이 인도·태국·중국·일본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허왕후가 그 중의 한 곳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역사상의 우연한 일이 실지로 벌어졌던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신화의 신비성을 더하기 위해 누군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리적 지식을 더한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 중의 어느 나라에서 허왕후가 실지로 왔다고 해도, 그것이 가야의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은 흔적은 없다. 다만 허왕후가 배에 錦繡綾羅·衣裳正段·金銀珠玉·瓊玖服玩器 등의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고 하였고 이를 뒤에 다시 「漢肆雜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는 해운을 이용하여 가야지역에서 漢系 문물을 교역하던 낙랑 상선의 도래와 관련된 염문일 수도 있다.

2) 대가야국 이진아시왕 신화

대가야 이진아시왕 신화는 내용이 매우 간단하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伽倻山神 正見母主가 천신 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大伽倻王 惱室朱日과 金官國王 惱室靑裔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伊珍阿豉王之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위에서 신화의 전체적인 구조는 천신과 지모신의 결합에 의한 출생 신화로 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신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난생의 요소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釋利貞傳〉이라는 전기의 성격상 계보만 간략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고령 良田洞 암각화 소재지의 지명이 「알터」라든지, 또는 정견모주가 알을 두 개 낳아 하나는 머물러 두고 하나는 낙동강 하류로 흘러 보냈다는 민간전승이 있는 것에서도 난생 요소가 원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가야 시조신화의 특징으로 가야산신 정견모주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즉 천신 이비가지가 나오기는 하나 수로왕 신화와 달리 降臨의 여부가 분명치 않고 단순한 感應에 그치고 있고, 그보다 가야산신의 권위가 선행된

다는 점에서 삼한시대 이래 고령지방의 토착 재지세력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釋順應傳〉에 대가야국 月光太子를 ‘이비가지의 10세손’이 아닌 ‘정건의 10세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점은 다시 확인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령과 김해 양 지역 신화 사이의 관계인데, 대가야국과 금관국(가락국)은 둘 다 그 국명을 「大加耶」·「加羅」 또는 「大駕洛」·「加耶」라고 칭하고 있으니, 이는 주변지역 전체의 소국연맹 즉 가야연맹에서 그들이 연맹장직을 맡았던 경험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둘이 동시에 가야지역을 둘로 나누어 분할통치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지역을 번갈아 통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가야 신화의 내용은 대가야국 시조 이진아시왕과 금관국 수로왕은 형제 관계로 되어 있으며, 《삼국사기》樂志에 전하는 대가야 악사인 于勒의 12曲에 「上加羅都」와 「下加羅都」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보면 상하 가야연맹에 의한 분할 통치의 형태를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가야측의 통치 명분이었을 뿐일 수도 있다.

혹자는 대가야국이 금관국보다 앞서 가야연맹의 연맹장직을 맡았다고 보기도 하였으나²⁾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명의 사용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석이정전〉의 기록을 통해서 고령이 대가야국이었을 때 김해는 금관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락국기》를 통해서는 김해가 가락국 또는 대가락국이었을 때 고령의 국명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김유신전 서두에는 수로가 개국하여 이름을 가야라고 하였는데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들을 연결지어 보면 초기에 김해가 가야국일 때 고령은 변경의 약소한 세력이었고, 뒤에 고령이 대가야가 되었을 때 김해는 금관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야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상황을 정리해 볼 때 4세기 이전 토광목곽묘 계통 분묘의 규모와 부장품의 양은 김해지역의 것이 가장 크고 많으며, 당시의 고령지역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2) 李丙燾, 위의 책, 311쪽.

에 5세기 이후 수혈식 석곽묘 계통 고총고분에서는 고령지역의 것이 가장 크고, 당시의 김해지역의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결과가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일단 그 추세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신화연구 결과에 대비해 볼 때 초기에는 김해의 가야국이 연맹장이었고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국이 연맹장이었으며, 고령과 김해의 대등한 형태의 상하 가야연맹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김해세력이 고령세력보다 먼저 연맹장직을 맡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아시왕이 수로왕의 형이라고 한 것은 대가야 시조신화가 고령 중심의 후기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진아시왕 신화는 가야연맹의 패권이 김해 금관국에서 고령 대가야국으로 옮겨 간 이후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 가야지역 연맹장 교체의 이념이 종래의 시조신화에 부가되어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金泰植〉

3. 가야 제국의 성립

1) 성립 배경

한반도 남부의 경상도지역에 국한하여 볼 때 기원전 6~5세기경부터 지석묘·흉도·무문토기 계통의 농경문화가 시작되었다. 정착 농경생활이 계속되면서 점차 富가 축적되고 읍락내의 신분 차이가 심화되어 거대한 지석묘를 축조할 수 있는 小君長세력들도 나타났고, 기원전 3~2세기경에는 그들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나타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충청·전라지역의 값비싼 청동기를 소량이나마 구입하여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위만조선의 유이민과 그들의 문화가 경상도지역에 직접 파급되어 오면서 발달한 청동기와 소박한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회통합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유이민 이주의 정도

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한반도 서북지방 문화의 직접적 자취가 대구·경주 등의 辰韓지역에 창원 등의 경남 해안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상도지역의 기존 농경문화 기반도 상당한 것이어서 새로운 금속기 문화의 파급이 즉각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 선진 제철기술 및 관련 문화양식은 先住세력들과의 상호연관 아래 점진적으로 토착화되면서 주변으로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원후 1~2세기경에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문화 축적을 이루어 경상도지방의 경주·김해 등지에 좀더 큰 단위의 고분 및 생활 유적을 영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축적 기반을 토대로 삼아 당시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선진문화를 보유한 중국의 상업기지인 樂浪과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가지면서 발전을 도모하여 갔다고 보인다. 특히 해운 입지조건이 좋은 경남 해안지대의 세력들은 좀더 적극적인 낙랑과의 교역을 통하여 진한지역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도모하였을 것이다.

경상도지역 각 지방세력들이 이처럼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발전해 나간 결과 2~3세기에 이르러서는 토기 양식 등의 유물에 보이는 문화성격이나 수준으로 보아 경남 해안지역과 대구·경주지역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등한 문화기반 아래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三國志》魏書 東夷傳에서 辰·弁韓의 여러 문화요소가 거의 같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당시 진·변한이 구분된 이유는 문화 성격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차이에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시야를 좁혀 2~3세기경의 가야지역 즉 변한지역에 한정하여 유적의 분포 상황을 살펴볼 때 우선 주목되는 것은 생활 유적 및 고분 유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유적들이 낙동강 하류 부근의 경남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낙동강 상류 및 서부 경남의 내륙 산간지방에는 그 유적의 분포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변한지역 가운데에서도 주로 경남 해안지대의 활발한 발전상이 이 지역에 초기의 가야 제국들이 성립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성립 시기

초기 가야 제국의 성립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는 앞서 검토하였던 《駕洛國記》와 《三國志》魏書 韓傳밖에 없으므로 이것과 고고학자료들을 토대로 그 중 하나인 가락국 즉 弁辰狗邪國과 그를 비롯한 가야소국들의 성립 시기를 살펴 보도록 한다. 앞에서 《가락국기》 소재 수로왕 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9간으로 상징되는 김해지역의 소단위 재지집단들이 자체 의사에 의하여 수로왕을 추대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락국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수로왕 신화에 보이는 가락국 개국 연대인 後漢 建武 18년(42)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가락국기》의 개국기원 연대는 그 말미에 인용된 《開皇曆》 등에 의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락국 왕력이 포함되었을 이 책의 편년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 왕력과 밀접한 관계 아래 정해졌으리라고 보인다. 가야 왕력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수로왕의 수명 및 재위 연대가 42년부터 199년까지 158년간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수로왕이 昔脫解(57~79)의 신라왕위 획득 전에 그와 경쟁을 벌였다는 설화 및 수로왕이 婆娑尼師今代(79~112)에 音汁伐國과 悉直谷國 사이의 영토분쟁을 중재했다는 설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수로왕이 그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다는 설화로 인하여 그의 즉위 연대가 이에 따라 상향 조정된 듯하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5세기 전반 신라 訥祗王 때의 인물인 朴堤上이 열전에는 2세기 전후한 시기에 재위한 婆娑尼師今の 5世孫으로 되어 있고, 열전에서 박제상의 祖父라는 阿道葛文王이 신라본기에서는 逸聖尼師今 15년(148)에 갈문왕으로 봉해진 기사가 나오므로, 박제상의 가계에 문제가 없다면 신라본기 초기 왕력 편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¹⁾ 그러므로 신라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편년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와 밀접한 연관 아래 작성된 《가락국

1) 金哲堧,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歷史學報》17·18, 1962;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106쪽.

기》의 가야 왕력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연대를 다소 인하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를 더욱 인상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헌자료만으로 가야의 개국 연대를 추구한다고 할 때, 《가락국기》의 後漢 建武 18년 즉 42년은 가야 기원 추정의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가락국의 존재는 3세기 중엽 이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 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곳에 변진 12국의 하나로서 「狗邪國」 즉 가야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景初中(237~239)에 魏 明帝가 樂浪·帶方太守를 통하여 諸韓國臣智에게 邑君·邑長의 印綬를 주는 과정과 관련하여 파악된 것으로 본다면, 그 중의 하나인 구야국의 성립은 3세기 전반을 하한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3세기 전반의 구야국은 당시의 辰王의 공식 칭호에 聯名되는 등 이미 변진 12국 중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세력의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구야국의 성립 시기는 늦어도 2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려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의 시초에 대한 문제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 기원전 1세기경의 창원 茶戶里 1호묘를 필두로 하여 김해지역 良洞里 등지의 토광목관·목곽묘와 김해패총 등의 철기문화 유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락국은 이러한 문화 발전을 토대로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고학적 견지로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락국 성립기로 인정할 수 있을까.

영남지역의 분묘 유적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볼 때 기원전 1세기 전반의 시기는 토기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외래의 세형동검 관계유물이 그에 추가되었을 뿐이고, 목관의 규모나 유물의 성격에서 기술이나 부의 축적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영남지방에 외래문화가 이주해 들어옴으로써 구야국과 같은 정치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문화기반이 성립된 시기로 의미를 축소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2세기 후반이 되면 목관의 규모가 커져서 대형 목곽묘가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유물의 양이 많아진 상태에서 有蓋臺附長頸壺(直口壺)·火爐形土器·短頸壺 등의 신식 와질토기가 나타나며, 철도자·철부·철낫 등의 농공

구뿐만 아니라 철검·철모·철촉 등의 다량의 철제 무기와 함께 環頭大刀가 새로이 등장하니, 이 정도면 단위정치체로서의 소국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그 이전 시기의 회색타날문토기 제조기술 및 철기 제조기술의 보편화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의 무력독점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철제 무기의 증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목곽의 시초 형식이 나타나고 부장유물에서 철제 무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찾아보면 조금 더 올려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가락국의 개국 연대는 대략 2세기대로 한정할 수 있는데, 가락국은 《三國志》魏書 韓傳에 「弁辰狗邪國」의 이름으로 나타나며 이는 「변진 12국」 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변진 소국들의 성립과정 및 시기도 가락국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존재 형태

《三國志》魏書 韓傳은 낙동강 유역에 김해의 가락국과 같은 소국들이 널리 존재한 이후인 3세기 전반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제 그 기록을 통하여 변진 12국, 즉 가야 소국들의 존재 형태를 추론해 보자.

3세기 전반 당시에 변진 12국은 각기 2,000戶 정도를 지배하는 독립세력이로되 상대적인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마한 50여 국이나 진한 12국의 경우에도 대략 비슷하였다. 사회단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규모 그 자체보다도 그를 통제하는 방법의 성격이겠지만, 인구 규모의 증가에 의한 압박이 그 내부의 통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인구 규모의 문제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국당 2,000호라는 규모는 하나의 고대국가로 보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한다. 그 중에서 한 나라의 戶數의 최대치인 5,000호와 최소치인 600호의 경우에 그 차이는 무려 8~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모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동일한 성격으로 서술한 것은 그 내부 구조의 동질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독립적 정치집단인 변진 소국들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변진의 경우 이 문제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삼한의 대외적인 존재 형태나 규모가 대략 비슷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마한의 자료도 포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한의 경우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으나 邑落들이 잡거하여 서로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아 소국 내부의 권력이 국읍을 포함한 다수의 읍락집단에게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²⁾ 다만 변진한에서는 길을 양보하는 습속이 있었다 하고, 변진에서는 그 법속이 특히 엄준하였다고 하므로, 변진 소국의 정치 기강 즉 국읍의 우월적 지배가 마한보다 좀더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이 변진 소국들의 경우도 그 권력이 국읍 주수에게 독점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각 읍락의 渠帥들에게도 상당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기본 성격까지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슬을 귀하게 여겨 몸에 치장한다 하므로 이미 사치품을 선호하는 귀족계급이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은·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므로 그들의 사치품 수요는 중국 물품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가 아니라 자생적 계급 성장에 따라 유발된 것이었으며, 아직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 안에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고자 할 때 年少勇健者들이 고역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는 소국 단위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인력을 동원하는 체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국읍내에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수와 달리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고 하므로 소국 지배권력의 성격이 초기 왕권의 神權的 또는 제정일치적 성격에서 진일보한 제정분리 단계의 것이나, 아직 그 기본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초월적인 왕권을 구축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2)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104쪽.

즉 각 소국은 그 안에서 국읍과 읍락간의 중층구조를 이루면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미약하나마 귀족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행정권력에 의한 인력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지배권력의 성격은 제정분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읍의 주수가 각 읍락의 거수들로부터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또한 천군의 종교적 권위를 초월하지 못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각 소국은 자기가 통합하고 있는 지배영역의 범위를 쉽사리 확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3세기 전반의 변진 소국들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볼 때 내부 구조적으로 정복 활동을 통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는 고대국가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에 이르기 이전의 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金泰植〉

4. 가야연맹의 형성

1) 가야연맹의 성립

김해 가락국(구야국)을 비롯한 12개의 변진 소국들이 언제 연맹체를 결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三國志》魏書 韓傳을 통하여 3세기 중엽에는 연맹체를 형성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할 정도이다.

우선 변진은 진한과 雜居하고 또한 성곽이 있으며 의복과 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와 법속도 서로 비슷하나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변진은 지리적 위치나 민족적·문화적 성격에서 진한과 비슷하나 신앙습속 즉 정치적 태도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진한과 변진은 서로 구분되는 정치집단이었다. 그런데 그 진·변한 24국 중의 12국, 아마도 변진 12국이 진왕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그 속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진왕은 늘 마한인이 되어 여러 세대를 이어왔으며 진왕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고도 하는데, 이는 마한의 진왕이 마한 54국뿐만 아니라 변진 12국을 대표하는 존재이지만 독점적인 지배권력을 배경으로 유지되는 지위라기보다 소국 臣智들의 선출에 의하여 결정되는 존재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마한조에 진왕은 目支國을 다스리고, (목지국의) 신지는 때로 우월을 더하여 臣雲遣支報·安邪踰支·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의 칭호를 일컬으며, 그 관리에는 魏率善邑君·歸依侯·中郎將·都尉·伯長이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진왕이 실질적으로는 목지국의 신지에 불과하나 중국과 교섭 때에 삼한 소국들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칭호와 여러 擬制의인 관리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진왕의 관리라는 사람들 중에 위솔선읍군 내지 백장 등은 소국 신지와 같은 군장 또는 그 이하 규모 읍락의 小군장들을 의미하니, 이들은 평상시에 각기 독립적으로 낙랑·대방과 교역하지만 의제적으로는 마한 진왕에 소속한 관리임을 내세웠던 듯하다. 이는 중국 군현과 대등한 크기의 교역 주체를 내세우기 위해 韓 소국들이 만들어내고 유지해 오던 제도였을 것이다. 중국인들도 진왕이 목지국을 다스리는 신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교역의 편의상 그대로 왕의 예우를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목지국 신지가 때로 우월을 더하여 칭한다는 「신운견지보·안야축지·분신리아불레·구야진지럼」의 칭호는 마한계 臣雲·漬臣離兒 2개 국과 변진계 安邪·拘邪 2개 국 신지들의 직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낙랑과의 교역문서 등에서 진왕이 마한 및 변진 12국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4개 국 군장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직함을 聯名하여야 했던 것이다.¹⁾ 진왕이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이들의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晉書》四夷傳에 마한의 교역 사실은 보이는데 변한의 교역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對중국교역상의 이러한 외형은 적어도 3세기 후반까지는 지속되었던 듯하다.

1)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韓國古代史研究會 編, 《韓國古代國家의 形成》, 民音社, 1990), 68~69쪽.

또한 목지국 진왕이 상대적으로나마 다른 소국들에 비하여 권력이 우월하였다는 흔적을 문헌상으로나 유적으로나 찾을 수 없어서 목지국의 위치조차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진왕은 원래 진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형동검 문화단계에는 비교적 韓諸國 전반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한 적이 있으나, 철기문화가 보급된 2~3세기에는 이미 그 지위가 종교적·상징적인 명분을 가지는 대표자의 지위로 전락하고, 실제로는 신운국·분신리아국과 안야국(함안)·구야국(김해)이 각각 마한 및 변진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변진 12국은 명분상 진왕에 소속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야국·안야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정치적으로 진한과 구분되면서 한·예·왜·2군과 교역하는 등 독자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인들로부터 韓에는 마한·진한·변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 가야국(또는 금관국)이 신라의 주요 경쟁 상대로 나타나는 점, 김해지역에 1~4세기의 유물·유적이 풍부하게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안야국보다는 구야국이 좀더 우월하였을 것이고,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후대인의 인식에 남아 《삼국유사》의 수로왕 신화와 5가야조에 김해 중심 6가야연맹의 전승을 남기게 하였을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는 해도 3세기 전반에 변진 12국은 김해의 구야국(가야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변한소국연맹 즉 전기 가야연맹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기 가야연맹의 영역

김해 가락국을 중심한 전기 가야연맹의 세력 범위는 《삼국사기》초기 기록의 전쟁 기사와 《삼국지》위서 한전의 변진 12국 관계 자료 및 해당 지역의 유적·유물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삼국사기》신라본기에 脫解尼師今 21년(77)부터 祇摩尼師今 5년(116)까지에 걸쳐 신라·가야 사이의 전쟁 기사가 나온다. 그 관계 기사에서 편년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가야와 신라 사이의 主戰場은 黃山津口·黃山河

및 加召城·馬頭城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황산하는 지금의 梁山郡 院洞面 院洞里 부근(옛 지명 玉池淵 즉 伽倻津)으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옛 지명 鷺島) 부근까지를 가리키며, 가소성과 마두성은 그 위치를 무리하게 비정하기보다 보류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 관계 기사에서 신라·가야가 황산하 즉 양산·김해 사이의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대치하던 시기(아마도 3~4세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의 김해 중심 가야연맹의 세력권은 대략 황산하까지였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전기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 시기의 토광목관묘 및 목곽묘 등에서 출토한 고고학적 유적·유물 자료와 3세기 전반에 대한 기록인 《三國志》韓傳의 弁韓관계 문헌자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변진한은 잠거하며 의복·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법속도 서로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3세기까지의 영남지방에서 출토한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그 내용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공통 문화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자료만으로는 진한·변한 또는 초기 신라·가야문화권의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앞으로 좀더 광범위한 발굴 자료가 축적되면 이 시기의 지역간 문화 양상의 미세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에 보이는 전반적인 추세는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진·변한의 문화 성격이 이처럼 공통적인 양식을 띠게 된 이유는 진·변한을 이루는 각 단위 정치세력인 소국들의 문화기반 및 수준이 서로 비슷하고 상호간의 정치적인 대립상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리 크지 않았을지 모르나 양 지역간에 각기 구심세력이 대두함에 따라 점차 증폭되어나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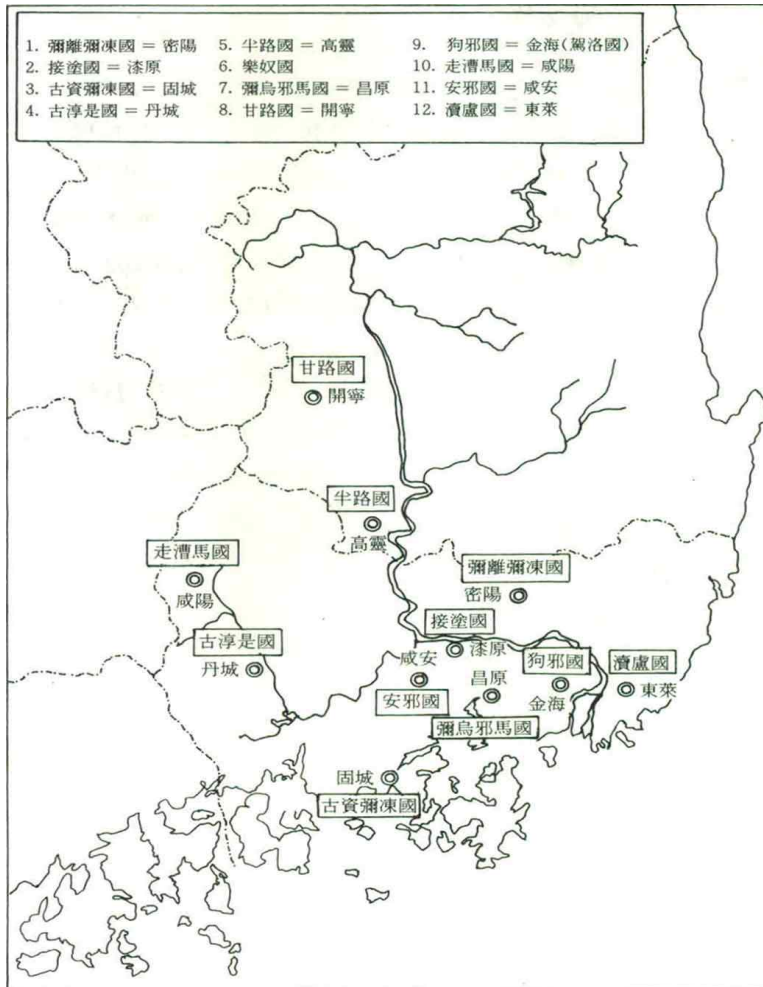
그러므로 1~3세기의 변한 즉 전기 가야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三國志》魏書 韓傳 소재 변진 12국의 위치밖에 없는데, 그 지명 비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변진 12국의 위치비정표

번호	국명	위치	근거
1	弁辰彌離彌凍國	밀양시	古名 密城郡・推火郡, 密陽市 内二洞 土墳墓유적
2	弁辰接塗國	함안군 칠원면	
3	弁辰古資彌凍國	고성군 고성면	古名 固城郡・古自郡, 固城郡 固城邑 東外洞貝塚 및 下一面 松川里 술섬 石棺7墓
4	弁辰古淳是國	산청군 단성면	古名 闕支郡・乞浪國(?)
5	弁辰半路國	고령군 개령면	半跛國의 잘못이라면, 伴跛・叛波와 관련하여 고령에 비정
6	弁辰樂奴國	×	
7	弁辰彌烏邪馬國	창원시	
8	弁辰甘路國	김천시 개령면	古名 甘文國
9	弁辰狗邪國	김해시	古名 駕洛國・加耶國, 金海貝塚, 金海市 府院洞 貝塚,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 土墳墓 유적
10	弁辰走漕馬國	함양군 함양읍	古名 卒麻國(?)
11	弁辰安邪國	함안군 가야읍	古名 阿尸良國・安羅國, 咸安郡 伽倻邑 沙內里 土墳墓 유적
12	弁辰漬盧國	부산시 동래구	古名 東萊郡, 「與倭接界」, 東萊貝塚, 釜山市 金井區 久瑞洞 土墳墓群, 老圃洞 土墳墓 유적

위의 〈표 4〉에 의거해 볼 때 거의 확실하게 위치 비정이 되는 곳은 밀양·고성·김해·함안·동래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추정해 둔 단성·고령·개령·진주 등을 포함하여 보면, 변진 12국은 대체로 지금의 경상남도의 영역과 비교가 되면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이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보면, 변한 즉 전기 가야의 영역은 김해·함안·밀양·동래 등의 낙동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고령·개령 등의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고성·단성·함양 등의 서부 경남지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도면 1〉 참조).

〈도면 1〉 전기 가야 12국의 위치비정도



여기에는 약간의 지역을 좀더 포함시킨다면, 옛 지명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도 토광묘 관계 유적이 발견된 지역 중에서 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창원과 함천·성주지역을 전기 가야(변한)의 공간적 범위에 추가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

전기 가야연맹의 발전 원동력은 낙랑군을 통한 원거리 교역과 그를 통한 선진문물 취득 및 대외 교역에 있었는데, 313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멸망되자 그 기본 구도는 일단 흔들리게 되었다고 보인다.

《삼국사기》奈解尼師今紀와 勿稽子傳 및 《三國遺事》勿稽子條에 나타나는 이른바 「浦上八國의 亂」이 그것이다. 즉 신라 나해왕 14년(209)에 保羅國·古自國·史勿國 등의 포상 8국이 가야를 침략하려고 하자 가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신라군이 구원하러 가서 8국 장군을 죽이고 6천 명을 잡아 돌아왔으며, 그 3년 후에도 또 한 차례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포상 8국이 연합하여 가야국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교역상의 경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단절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언가 예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동 속에서 전쟁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야기할 만한 사건은 4세기 초 낙랑군·대방군의 소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문물 보급의 핵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진변한 소국을 비롯한 지역세력들은 그 때까지의 문화 축적을 토대로 하여 각지에서 자기 지역 기반을 기초로 한 통합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상도지역이 새로운 분열·통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포상 8국의 난은 4세기대의 그러한 혼란상을 배경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건의 결과 가야국이 왕자를 신라에 인질로 보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 것 같지는 않다.

낙랑군의 멸망으로 인하여 한반도 남부에 위와 같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을 무렵 낙랑·대방군을 소멸시킨 당사자인 고구려는 옛 대방지역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한반도 북부의 이 대립상황은 그대로 한반도 남단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라와 가야의 문화는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기되어 나간다. 즉 경주세력은 진한의 맹주라는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부용이 되어 그 제도 및 문물을 수입하여 주변의 다른 소국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한 통솔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고, 김해세력

은 곧 혼란을 수습하고 낙랑·대방을 대신한 백제와 교역을 계속해 나갔다.

이리하여 신라는 3세기 단계의 진·변한문화 공통기반을 토대로 한 위에 고구려 계통의 색채를 가미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으니, 4세기 중엽 이후의 적석목곽분·관모·신라토기 등에서 보이는 강건한 분위기는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주 月城路 고분에서 출토한 북방계 短甲이나 고구려계 綠釉土器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직접 통교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야지역은 3세기 단계의 진·변한문화 공통기반을 큰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는 당시 백제의 영향력의 성격이 낙랑-가야-왜로 연결되던 고대 상업적 교역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그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들어 중국 南朝 東晉과의 교역에서 얻은 선진물자를 가지고 한반도 서남해안-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하여 신라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야는 그 중개역을 맡으면서 자기 지역에 대한 패권을 더욱 강화하고 왜와의 교역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김해 大成洞 고분군에서 보이는 유적 규모의 증대 및 왜 계통 유물의 증가는 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고구려·백제의 대립에 따른 신라·가야의 분화 발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4세기 말 5세기 초에 걸쳐 한번 더 큰 변혁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고구려·백제 사이의 패권 다툼에서 백제가 대패하고 광개토왕의 고구려군 步騎 5만이 신라를 도와 낙동강 하류지역까지 쳐내려와 가야를 토벌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결과 가야지역은 타격을 입고 약화되며 중심지역이었던 경남 해안지방의 잔여세력 중 일부는 진 단계의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거나 또는 일단 연맹의 핵을 잃고 쇠잔하여진 듯하다. 즉 김해·창원지역에는 초기 유적이 풍부하여 그것이 무난하게 성장하면 경주와 같은 상당한 전제권력을 이룰 가능성이 많았으리라고 예측되는데, 5세기 이후 그것이 정상적인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그러한 한 차례의 파산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해 등 중심세력은 현저히 퇴락하고, 동래·성주 등의 일부 세력은 고구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력을 키워나가던 경주 중심의 신라지역으로 이탈하여 들어갔다고 보이므로 이와 함께 전기 가야연맹은 해체된 것이라고 하겠다.

〈金泰植〉